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록

1. 일시: 2025. 1. 10.(금) 14:00~15:30

2. 장소: SK미래관 504호

3. 위원

▷ 참석위원: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위원장)

박철범 총무처장

변영주 세종기획처장

김현수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송문정 대학원혁신본부장

김한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장

김진경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김용휘 대학원 총학생회장

오영채 정경대학 학생회장

김혜민 대학원총학생회 정책국장

김우성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외부전문가)

이상 11명

▷ 불참위원: 박현숙 학생처장

이선우 의과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상 2명

▷ 배석자: 박태용 기획예산처 부처장

김효현 학생처 학생지원팀 과장(위원회 간사)

김서영 등록금문제대응특별위원장(위원회 간사)

이상 3명

4. 개회 및 서두

가.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 및 위원 위촉장 수여

- 1) 위원장 소개 및 위원 간 상견례 후 개회를 선언함.
- 2)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5. 토의사항

가. 학교 등록금 책정(안) 배경

- 1) 학부는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되어 왔으며, 대학원과 외국인학생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여 왔음.
 - 2)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 총 수입은 정원 순증 및 계약학과 신설에도 입학금 폐지 등의 영향으로 2014년 대비 73.4억 원(5.1%) 감소하였음.
 - 3) 그럼에도 본교는 2024학년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육여건 순위가 6위에서 2위로 상승하는 등 교육여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4위(사립대 2위), 1인당 장학금 지급액 2위, 학생 1인당 교육비 3위, 세입 대비 기부금 수입 1위 등
 - 4)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학부 등록금 동결 기간(2014년) 중 물가 상승 21.2%, 환율 상승 415원, 최저임금 93% 인상)
 - 5) 우수 교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2025학년도 교원 인건비 59억 원 및 신입교원 정착연구비 연간 20억 원 이상 추가 소요 예정)
 - 6) 2023년 ~ 2026년 건축사업(학생회관 3곳, 자연계 중앙광장, 정운오IT 교양관, 정경관, 고시동, 체육생활관 등) 및 인프라 개선(학사시스템 및 포털시스템, 무선랜 등) 총 2,757억 원 소요 예정(기금 및 국고사업 재원 우선 활용 예정)
-

나. 학교 등록금 책정(안) 제시

- 1) 학부 내국인 : 5.49% 인상
- 2) 학부 외국인(정원외) : 10.0% 인상
- 3) 일반대학원 : 동결
- 4)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일부 5.49% 인상 (평균 약 2% 인상)
※ 교육대학원, 법무대학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에너지환경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입학금 1,900천원으로 인상) 동결

다. 학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부연 설명

- 1) 학부 등록금의 경우 다년간에 걸쳐 나누어 인상하는 것은 정부의 국가장학금II 유형 지원 정책을 감안하였을 때 학교에 더 불리하게 적용(약 40억 원)되므로 법적 상한을 적용하여 인상하고자 함.
 - 2) 등록금 인상으로 5년간 국가장학금II 지원 축소되는 부분은 학교 예산을 통해 보전할 계획임.
 - 3) 외국인학생의 경우 환율의 영향으로 10% 인상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없는 상황임.
 - 4) 일반대학원의 경우 3년 연속 인상(안)이 반영되었으므로, 동결함.
 - 5) 특수·전문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만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인상률은 2% 정도임.
 - 6) 학부 등록금 수입은 총 75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장학금II 지원액 보전 등을 고려한다면 35억 원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으나, 신입교원 확충 등에 따른 비용이 여전히 더 큰 상황임.
-

라. 학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1) (서울 학부) 등록금을 올려야 할 만큼 교비회계 상황이 절박한지, 그리고 올려야 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확실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임. 본교는 법인부담금(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수당 등)의 약 60%만 법인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비에서 부담하고 있음. 규모가 비슷한 연세대, 성균관대 등은 법인부담이 100%이나, 본교는 2014년 이래로 이 비율이 유지되고 있어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함.
→ 재단의 재정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임. 성균관대는 삼성이, 연세대는 수익사업(연세우유, 건물 임대 등)의 재원이 있으나 본교 재단은 그러한 규모의 수익이 없으며, 단기간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님.
 - 2) (서울 학부) 교원 보수액 중 교원 상여금이 연세대와 비교하여 4배 정도 많은 이유가 궁금함.
→ 교원 보수 체계는 각 대학마다 다르고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음. 본교의 경우 본봉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당 등이 높을 수 있음. 국감자료에 나온 본봉을 보면 본교의 교원 보수가 국내 대학 중 50위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음.
 - 3) (서울 학부) 국고지원금 중 '기타국고지원' 항목이 2024학년도 기준 연세대에 비해 100억 원 정도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본교가 120억 원, 연세대는 18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으며, 다년간 지원 사업으로 해마다 달라질 수 있음.
 - 4) (서울 학부) 냉난방비가 2024년 대비 2025년 10억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 경상비성 비용은 본예산에서는 낮게 잡고 추경예산에서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있음. 냉난방 가동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금을 1% 이상 남기지 않기 위해서임.
-

- 5) (외부위원) 국가장학금II 유형의 지원금 감축은 룰에 의해 세팅되어 있는 것인지? 정책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 등록금 인상 시 당해연도 0%, 1년차 60%, 2년차 70%, 5년차가 되어야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6) (대학원) 특수·전문대학원의 학생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고 논의하기 어려움.
→ 특수·전문대학원의 경우 대학원별 운영 상황에 따라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여 일부 대학원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음.
- 7) (세종 학부)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가 서울캠퍼스 위주로 되어 있어, 세종캠퍼스의 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움. 세종캠퍼스에 해당하는 내용도 회의자료로서 보여주기를 바람.
→ 전체적인 상황은 서울과 세종이 유사함. 세종 기획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회의자료를 준비할지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자료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를 정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8) (서울 학부) 2025학년도 본예산 자료 제공이 1차 회의 전날 이루어졌음. 회의자료 제공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함.
→ 1주일 전에 자료 공람이 되어야 하나, 일부 자료의 경우 자료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제공이 늦어졌음. 추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양해 바람.

6. 향후 회의 일정 협의

가. 2차 회의: 2025. 1. 17.(금) 13:00 ~

* 12:00부터 점심식사 제공

나. 3차 회의: 2025. 1. 23.(목) 14:00 ~

<폐회 15:30>



등록금심의위원회(2025년 예산) 참석자 명부

• 일시 및 장소 : 2025.1.10.(금) 14:00 / SK미래관 504호

• 참석자 명부

연번	직위	소속	성명	서명
1	위원장	기획예산처장	유용근	
2	위원	학생처장	박현숙	
3	"	총무처장	박철범	
4	"	세종 기획처장	변영주	
5	"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김현수	
6	"	대학원혁신본부장	송문정	
7	"	서울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장	김한범	
8	"	대학원 총학생회장	김용휘	
9	"	세종 총학생회장	김진경	
10	"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11	"	대학원 총학생회 정책국장	김혜민	
12	"	정경대학 학생회장	오영채	
13	"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김우성	